

제 4과 악행에서 돌이키라

읽을 말씀 / 예레미야 25:1~5

외울 말씀 / 데살로니가전서 5:22

참고 말씀 / 갈라디아서 5:19~21

교육 내용 /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에서 떠나 오직 진리대로 행하여 응답과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이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 섬기기를 게을리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하나님 찾기를 반복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길로 이끄시기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 악행에서 돌이키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1. 악행에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남유다 왕국 말기 요시아 왕 때부터 활동한 예레미야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무시해 온 백성을 향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백성은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했지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앗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마저 그 악행 때문에 망하게 되었으니 예레미야가 이를 안타까워하며 악행에서 돌이켜야 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진노하신 것은 바로 간음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남유다 백성은 갖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23년간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렘 38:4~6).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도 말씀대로 행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이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하셨으니 악행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2. 우리가 왜 악행에서 돌이켜야 하는가?

우리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집에서는 가족과 일가친척,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친구들,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가 서로 유익을 주며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시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서로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매일 술에 만취하여 귀가한다면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학교에서 학생이 늘 소란을 피우며 수업을 방해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동료 간에 감정이나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서로 힘들고 업무 능률도 떨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법에 저촉받을 만큼 큰 죄에 해당하는 도둑질이나 사기 행각, 간음, 살인, 폭행 등은 더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주 안에서도 크고 작은 죄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악행이 있는데, 바로 육체의 일입니다(갈 5:19~21). 이 외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쉽게 짓는 죄에는 시기, 비방, 판단, 정죄, 미움, 간음, 거짓 등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쉽게 짓는 죄 중의 하나입니다(삼상 12:23).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를 상세하게 열거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혹 죄를 지었다 해도 돌이키기 원하시는 것이지요.

만일 이러한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저런 고통과 연단, 시험 환난이 따릅니다. 그리고 현저한 육체의 일 곧 음행과 호색, 우상 숭배, 분쟁, 방탕함 등의 죄를 계속 지어 나가면 “죄의 삯은 사망”이라 한 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처럼 악행에서 돌이키지 않아 온갖 재앙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3. 온갖 재앙을 겪은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얻는 교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모세를 그들의 구원자로 보내십니다. 즉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 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셨음을 알려 줍니다(출 7:9~10).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애굽에 열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의 하수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으로 시작하여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떼의 재앙, 악질의 재앙, 독종의 재앙,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의 재앙, 장자의 재앙으로 생명까지 거두어 가는 열 재앙을 당하였지요.

바로 왕은 열 번째 재앙을 당한 후에야 출애굽을 허락하지만 이내 마음이 변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 왕의 마음이 또 변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급히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두셨습니다. 온 애굽 사람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서 떠나가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자손이 다 떠나니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바뀌어 부랴부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 결과 홍해를 건너던 애굽 군대는 병거와 함께 모두 수장되고 말았지요.

만일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 주었더라면 화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 재앙으로 고통받지도, 사랑하는 아들과 많은 생축, 재물과 병사를 잃지도 않았겠지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우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그렇지 않으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하실 때에 금방 돌이키면 손실이 적지만 시간을 끄는 만큼 많은 손실을 입습니다.

4. 악행에서 돌이킬 때 임하는 축복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다면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면 즉시 돌이키되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 하셨는데 서쪽으로 갔다면 완전히 돌이켜 동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 용서를 베풀며 응답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병으로 죽게 되자 그는 죄에서 돌이키고 통회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왕하 20:3).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그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들으셨지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되, 죄에서 철저히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쳐야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녀들이 모두 죽고 많은 재물이 사라졌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원망 불평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합니다(욥 27:2).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십니다. 이에 욥이 자신의 잘못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악을 깨닫고 중심으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온전히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약속한 것은 변개하지 않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악행이 발견되면 즉시 돌이킬 때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언제 불러가실지,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 영과 혼과 몸을 흠 없게 보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악에서 돌이켜 오직 진리로 행할 수 있기 바랍니다.

● 평가 및 적용하기

1. 범직한 유다 백성에게 23년간이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키라고 호소한 눈물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
2. 죽을병이 들었을 때 낮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눈물로 통회자복하며 기도한 후에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은 왕은 누구일까요? ()
3.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악행에 대해 써 보세요(갈 5:19~21).

● 금주 과제

〈내가 시행하리니〉 책자 61~71 페이지까지 읽고 밑줄 쳐오기.

● 알고 넘어갑시다!

애굽의 술객들은 어떻게 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순식간에 물이 피로 변했다. 그런데 애굽의 술객들도 물이 피로 변하게 하니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애굽 궁중의 술객들은 갖가지 재주를 부리며 왕을 즐겁게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술법을 통해 벼슬길에 올랐으며 조상 대대로 이어온 가업이기 때문에 재질을 타고날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그들은 악한 영들과 접하였고 교묘한 눈속임과 자신들이 터득한 기법을 활용하여 물이 피로 변하게 했다. 물론 애굽 전역의 하수를 피로 변하게 한 모세와 달리 그들은 일부만을 피로 변하게 했을 뿐이다.

이재록 목사 설교 테이프 안내

- ◆ 신앙생활에 필요한 성경, 찬송 외에도 생명력 넘치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MP3파일 CD, 설교집, 간증책자, 교재를 안내실 옆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시리즈 설교 및 강해설교 제목설교도 갖추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24), 믿음의 분량(27), 사랑장(20), 심계명(11), 열재앙(10), 성령의 9가지 열매(9), 팔복(9), 출애굽기 강해(16), 레위기 강해(18), 고린도전서 강해(84), 욥기 강해(198), 잠언 강해(299), 요한계시록 강해(100), 천국(59), 지옥(21), 요한복음 강해(221), 창세기 강해(진행중), 요한일서 강해(진행중) 외 다수

구입 및 문의처 / TEL 02-867-7455

온라인번호/ 우체국 013912-01-000175
(예금주/ 만민교회 서점)



설 명절 감사예배 순서와 설교 예문

설날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음력을 사용하는 아시아권 나라들에게 있어 일 년 중 가장 큰 명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대하며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신 조상의 믿음과 교훈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에도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1. 설 명절 감사예배 순서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같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 송 ----- 305장 -----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아버지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도 -----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 야고보서 3:17~18 ----- 인도자
 설교 ----- 화목한 가정 ----- 설교자

2. 설교 예문

아버지가 밖에서 큰일을 이루어 명성을 얻는다 해도 자녀들이 다두고 미워하여 가정이 평안치 못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심히도 아플 것입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라도 것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이라 스스로 말하기가 부끄럽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밖에서 큰일을 이루는 동안 형과 누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동생들을 돌봐주고, 동생들은 부모님께 하듯 형, 누나의 말에 순종하며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면, 아버지도 마음이 놓이며 더욱 힘있게 일할 수 있지요. 또한 아버지의 명성과 영예를 자녀들도 기쁜 맘으로 함께 누릴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서로 위해 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무엇보다 입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의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한마디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불씨가 화근이 되어 큰불이 나면 많은 재산이 손실되고 인명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또는 드넓은 산지의 수많은 수목이 짧은 시간에 잿더미로 변해 버리기도 하지요. 성경에서는 혀의 말이 이러한 화근이 될 수 있기에 조심할 것을 경계합니다.

야고보서 3장 5~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입술로 낸 말로 인해서 얼마나 화평이 깨지기 쉬운지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부부간, 자녀 간에도 그렇고, 직장, 일터에서 동료 간이나 부하 상사 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서운함으로 인해 낸 말이나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때에 내뱉는 불평의 말 안에는 악한 감정이 섞여 있지요. 우리가 서운함이나 불평불만을 마음에 가지고만 있는 것과 그 감정을 입술의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낸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유를 들면, 여러분이 검은색 잉크병을 호주머니 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 뚜껑을

열고 뿌리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마개를 열고 뿌리면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검은색 잉크가 튀게 됩니다. 서운한 말이나 불평불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것을 입술로 내었을 때는 자신은 물론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래도 마음이 선한 경우는, 말한 사람도 ‘말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거나 듣는 사람도 ‘저 사람의 입장을 더 살펴 주지 못했구나.’ 하며 마음 한편에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입술로 한 번 낸 말도 주워담을 수 없지요.

이처럼 양쪽 모두 선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살펴 준다면 그나마 화평이 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하지 않은 마음으로 말을 내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들도 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이 다르다 하여 불평불만의 말을 내었는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서로 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어떤 사람이 하는 비진리의 말과 수군거림을 듣고 거기에 한두 마디 동조를 했다고 합시다. 물론 자신은 악한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기도 모르는 악이 마음 안에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연합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나면 발동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입술의 말을 조심하되 선한 것만 보고 들으며 말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엡 4:29). 악한 말은 은혜를 끼칠 수도 없고 상대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2. 서로가 서로를 섬겨 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 줄 때 화목하며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고 시시비비가 잦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에 금이 가고 말지요.

화평이 깨지는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상대의 의견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강하게 내세우고 상대를 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섬김의 마음이 된다면 화평이 깨어질 리가 없습니다. ‘섬김’이란 단지 겸손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여 상대에게 유익을 주며, 상대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여 돌볼 때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듯이,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자신은 형체를 잃을지언정 온전히 녹아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자기를 온전히 버리는 것이 바로 섬김이지요. 그래서 섬기는 사람은 항상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범사에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줍니다. ‘저 사람을 위해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마 23:11). 중심에서 섬기는 자가 되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으로 상대를 섬기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나”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내 것, 내 스타일, 내 욕심, 내 가족, 나 보기에 의로움, 내 고집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섬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섬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정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불편한 일들을 볼 때 마음에 담아 놓게 되고 언젠가는 변질되는 열매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진리니까 섬겨 줘야지, 기분은 나쁘지만 참아 줘야지.’가 아니라 중심에서 섬기는 행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지요.

새해에는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덕스러운 말로 상대방에게 힘을 실어 주고, 마음 중심에서 섬김으로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 ----- 다 같이

주기도문 -----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